

민주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 구도 급변

김삼호 후보 컷오프 구제

김영록·윤봉근 단일화 무산

서구청장 후보 김성현도 구제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중앙당 재심에서 구제되면서 광산구청장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김삼호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컷오프 탈락과 관련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김 전 이사장과 함께 김영록 광주전남세무사회 회장, 윤난실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

김 후보는 “중앙당의 재심인용은 30년 민주당원으로서 모범적으로 활동해온 김삼호에 대한 당의 믿음과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1987년 평민당 입당 후 공직 생활을 제외하고 민주당원 외길을 걸어왔다는 점,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년 공직활동의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어 “불법 혐의가 없는 당원모집을 문제시한다면 정당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까지 겪은 시련은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뛰려는 당과 시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본선 승리를 향해 달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는 28일 광산구 혁신사거리 덕양빌딩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

다.

앞서 김 후보가 컷오프되자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은 윤난실 후보에 맞선 김영록·윤봉근 단일화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영록·윤봉근 후보는 김삼호 후보의 재심 결과가 발표된 이날 “윤난실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 후보가 여성 가산점을 얻는 데다 전략공천 실까지 돌아 이를 막으려고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당의 결정에 따라 4강 구도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그러나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난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심사 결과가 중앙에서 번복되고 컷오프 발표 직후에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돌연 선언하는 등 적대적 정략선거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결정이 시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재선거의 우려와 이로 인한 혼란, 시민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고 말했다. 광산구청장 선거의 경우 민주평화당에선 이정현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표발을 다지고 있다.

한편, 김성현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의 컷오프 탈락에 대한 재심 요청도 중앙당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서구청장 선거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임우진 구청장과 민주당에서는 김보현·김영남·서대석·김성현 후보,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상일(5)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쟁하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전당 연계 지역 활성화 집중 논의

민주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 TV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 경선을 위한 첫 TV 토론회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동구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25일 CMB광주방송이 진행한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에는 강수훈·강신기·양혜령·임택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강수훈 후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교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원하겠다”면서 “광주비엔날레를 뛰어넘는 ‘광장 민주주의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강신기 후보는 “동구의 장소적 희소성과 특징을 살린 도시디자인이 필요하

다”면서 “도심재생 추진위원회를 가동해 원주민들이 원도심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혜령 후보는 “문화전당, 국립공원 무등산, 의료관광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연간 1000만명 유치하겠다”면서 “광주의 랜드마크를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건립하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택 후보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주제별 골목투어’를 진행하는 등 총장로 상권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북부순환도로 2공구 5월 2일 개통

일곡교차로~도동교차로

광주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의 2공구 일곡교차로~도동교차로 구간이 오는 5월 2일 개통된다.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2공구는 일곡동 일곡교차로부터 장등동 도동교차로까지 총연장 3.52km,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6여 년간 총사업비 79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북구 일곡지구와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흥지구간 북부순환도로망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지역간 이동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루 2만5000대 이상의 차량이 북부순환도로로 분산돼 호남고속도로 용



봉 나들목, 동광주 나들목과 동문대로 등 시가지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찬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2공구 개통으로 일곡, 문흥 등 북부지역 교통 불편이 해소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함평 나비대축제장의 동심

함평 나비대축제를 이틀 앞둔 25일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꽃터널을 걸어가고 있다. 함평 나비대축제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일대에서 열린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금남지하상가 안내체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8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길 찾기 쉬운 금남로 지하상가 만들기’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국비 4억원 등 5억7000만원으로 금남로 지하상가 일부 구간(금남로 1~3가)의 안내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시범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시행했다. 시는 금남로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면 안내 체계가 미흡해 광주디자인센터와 함께 사업을 구상,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금남로 지하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쉽게 길을 찾는 정보안내체계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범구간에 설치하고 내부 공간의 특성을 살려 휴식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상가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주민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그린카진흥원장 자진 사퇴

오일근 광주그린카진흥원장이 자진사퇴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 원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광주그린카진흥원 이사장인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이를 수리했다. 오 원장은 지난 2016년 7월 제3대 그린카진흥원에 취임했으며,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1년9개월 만에 중도하차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그동안 자동차밸리산업추진위에 대한 감사와 직원들의 원장 해임 요구 등으로

잡음이 일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 광주시 전략산업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2011년 민선 6기 최대 현안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자리·안전 등 사회적 가치실현 예산 확대

광주시 민간전문가 혁신협 구성

이달말까지 혁신 실행 계획 수립

광주시가 일자리,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늘리고 여성 관리직 및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조만간 혁신과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광주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5일 오전 시청에서 정중제 행정부시장 주재 아래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실행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지난 3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

부혁신 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성 회복’ 등 지역 실정에 맞는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혁신사업 50건을 발굴·제시했다.

주요 혁신사업으로는 ▲조직 내 협업 문화 정착 ▲시민 토론 광장, 시민참여 플랫폼 상설 운영 ▲공유자전거 개방 활성화 ▲공직비리 감찰 활동 강화 ▲빅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낯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혁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명품하는 행복한 주민

화순군 HWASUN-GUN

[국가명승 제112호]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화순적벽 버스투어

- 운영기간 : 2018. 3. 24 (토) ~ 11. 25(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콩닥콩닥 설렘화순 버스투어

- 운영기간 : 2018. 3. 24 (토) ~ 11. 24(토) [매주 토요일]

접수방법 : 인터넷 예약 (화순적벽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화순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조광조 유평지